

‘메이드 인 광주’ KIA 쏘울 100만대 돌파

6년4개월만... 단일차종으로 스포티지 이어 두번째

생산물량 98% 수출...80%이상 북미시장서 팔려

“쏘울을 파는 미국의 딜러들에게 기아차 광주공장이 ‘성지’나 다름없어요. ‘최고로 잘 나가는 차’가 만들어지는 전 세계 유일한 공장 아니까요.”

지난해 현대·기아차그룹의 한 인사가 꺼낸 말이다. 국내와는 달리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대표 생산 차종인 쏘울이 북미시장의 인기로 힘입어 지난 7일 누적생산 100만대를 돌파했다. 일례로 세우면 서울~광주 직선거리인 300km를 7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숫자다. 누적 생산 100만대 돌파(쏘울 EV 포함)는 2008년 9월 양산 이래 6년4개월 만에 이뤄졌다. 광주공장 역사상 단일차종으로 100만대가 생산된 것은 스포티지에 이어 두 번째다.

트럭 등 주로 상용차 위주이던 광주공장이 스포티지 생산으로 품질력을 인정받은 뒤 쏘울을 양산해 기아차의 세계 수출을 견인한 만큼, 쏘울은 기아차 광주공장에 적합한 의미를 가진 차다. 또 전 세계에 몇 되지 않는 ‘포프 모빌’

(교황의 전용차)로 이름을 올린 차이기도 하다. 독특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예술 작품’이 되기도 했다. 광주 출신 전신영 작가는 ‘빛과 사람’을 주제로 만든 작품 ‘플로우’를 쏘울에 입혀 현재 광주시청에서 전시 중이다.

2008년 9월 출시된 쏘울은 출시 당시부터 기존 국내 완성차에서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당시 국내 자동차시장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신개념 CUV(Crossover Utility Vehicle)로 기아차 디자인경영의 결정체라는 평가가 나왔다. SUV의 스타일에 미니밴의 다목적성과 세단의 승차감을 접목시킨 쏘울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출시되던 해 11월부터 유럽시장 판매차 선적에 돌입해 2009년 2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고, 북미시장에는 2009년 1월 중순부터 북미수출 물량을 선적, 3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됐다.

이후 2014 기준 생산물량 중 98.3%가 수출될 정도로 해외시장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80% 이상이 북미



시장에서 팔려나간다. 쏘울은 미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바탕으로 도요타 싸이언xB와 닛산 큐브 등 이른바 ‘박스카(Box Car)’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며 북미 진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 박스가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쏘울의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14년 7월 세계 3대 디자인상의 하나인 ‘2014 IDEA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기아차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상’, ‘iF 디자인상’, ‘IDEA 디자인상’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뛰어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전기차로 재탄생한 쏘울EV는 국내 친환경차 시

장에서도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쏘울EV는 현재 국내에서 출시된 국산 전기차 가운데 최고의 성능을 갖췄다. 1회 충전을 통해 148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시 24~33분, 완속 충전시 4시간20분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급등한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광주와 제주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전기차 공모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다. 친환경차를 중시하는 해외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아 쏘울EV는 기아차의 노르웨이 진출 사상 최초로 ‘2015 노르웨이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에어아시아 여수 선교사 부부 시신 확인

탑승자 168명중 48명 수습

인도네시아 자바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에 탑승한 한국인 희생자 2명의 시신이 확인됐다.

11일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희생자 시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재난희생자확인팀(DVI)은 이날 오후 여수출신 부부 선교사 박성범(37)씨, 이경화(36)씨 등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의 시신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로 가다 추락한 사고 여객기에는 박씨 부부와 11개월 된 딸 유나 양 등 한국인 일가족 3명이 탑승했다. <광주일보 2014년 12월 29일 1면>

박씨 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준비하던 중 싱가포르를 방문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한국인 희생자 시신의 신원은 차아 대조와 입고 있던 의상 등을 통해 확인됐다.

DVI팀은 한국인 희생자들의 시신에 대해 추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최종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수색 당국은 이날까지 사고 여객기 탑승자 162명 중 48명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이 중 시신 32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박씨 부부의 유가족은 유나 양의 시신이 확인되거나 인도네시아 당국의 시신 수색이 끝나면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준기자 bhj@연합뉴스>

광주시, 2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공무원 고발

광주시는 2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세부지침을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시 공무원이 재직기간 200만원 이상 금품을 횡령·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징계 처분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수수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최근 3년 안에 해당 비위 적발로 징계를 받았으면 예외 없이 고발 조치된다. 인사·계약 등 서류를 위·변조, 은폐한

때도 예외가 없다.

그동안 공무원 직무 범칙에 대한 자체 고발 기준이 없어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사안의 경중과 고의나 과실 정도,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 고발 여부를 판단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관용 원칙’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며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는 공직사회의 재량권을 제도로 막아 고장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한센인 피해자 지원 확대”

문형표 복지부장관 소록도 방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0일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현재 570여 명의 한센인이 생활하고 있는 한센인 전문 치료·요양·연구기관으로, 이번 방문은 한센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과거의 아픔을 지닌 이곳 소록도가 지금의 희망찬 모습으로 바뀐 것은 여러분들과 소록도 직원들의 노력이 의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현재 한센인 피해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의 자에게만 지급하는 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피해자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존 한센인 피해자 4307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피해자 3591명에게 2012년부터 매달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된 상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세월호 인양 검토 조사선 ‘이어도호’ 진도 해상 도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소속 다목적 해양연구선 이어도호(357t)가 지난 10일 진도군 병풍도 인근 세월호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이어도호는 세월호 인양여부 검토를 위한 조사작업을 수행한다. 이어도호는 수중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물체를 촬영할 수 있는 ‘고해상도 사이드 스캔 소나’, 기존 GPS의 정확도를 높인 ‘DGPS’, 해저지형 탐사 및 수심측정기, 초음파 해류계, 기상 관측 장비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2010년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인양 지원에도 참여했다. <연합뉴스>

‘F1 10년’ 1면에서 계속

전남 최대규모 사업...정확한 평가 이뤄져야

지난해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신 266일간 F1경주장 임대료 5억30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는 점에서 앞으로 순수하게 경주장 운영을 통해 시설비를 충당하려면 산술적으로 80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연도별 대회개최비와 경상운영비로는 각각 1675억원과 1097억원을 사용했다. 여기에 2010~2011년 중계권료 295억원, 2010·2011년 F1대회 운영법인 카보 출자금 173억원, 금융비용 573억원, 기반시설 설치비 654억원 등이 추가됐다. 금융비용 중 321억원은 지방채에 대한 이자, 252억원은 카보 관련 금융자금으로 드러났다.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 대회 개최에 들어간 경상비는 4467억원으로, 전남도가 F1대회를 4년간 개최해 얻은 수익이 118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287억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

전남도가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F1과 관련된 투자한 혈세는 모두 8752억원, 4년간

F1 개최 및 1년간 임대를 통한 수익이 1185억3000만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7566억7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셈이다.

전남도는 F1 개최로 인해 임차객 유입에 의한 목포·영암 등 지역경제 부양 및 지역 이미지 개선, F1 경주장으로 인해 튜닝산업 등 자동차 관련 산업 유치 등이 가능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F1 관련 구체적인 지출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는 물론 위약금 포함 자칫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지 적자’와 관련 집행 결정은 타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만큼 ‘F1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최종적으로 8752억원이 쓰였으며, 수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지난 2012년 F1조직위가 대회를 개최하면서 제계약을 통해 중계권료를 없애고, 개최권료도 낮췄기 때문에 채무가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문의: 노안리식/Karma Inl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 /레스토렌즈/렌드를 나이버전 인레이

문의: 140611-중-59153호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엔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엔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는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십시오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우송하여 드립니다.